

은혜로운 사랑 속에 꽂혀나는 행복의 웃음소리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가 준공되어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넓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이 되었다.

그 날은 많았어도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에서 풀려나오는 웃음소리로 그칠 줄 몰랐다.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힘, 찬란한 미래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삶현리 강로우에 온 세계가 우리로보는 현대화길길, 인민의 땅원을 월마 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제 나름의 멎을 사랑하는 물들이, 숲마을 등기들이 많지만 우리의 문수를 놀이장이나 미림승미구락부처럼 평화로운 학생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이에게 높은 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리며 연발 단장을 올리고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안는 물체계에서 시간가는 데 묵도 모르는 사람들, 네금을 암고 말리는 말우에 빙어되는 숨마복을 입식으로 차라리고 암과 경폐한 집주에 희용을 금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차는 말들에 물과 행 복에 거워 어쩔 줄 모르는 어린이들...

기쁨과 흥분을 금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건설을 구상하신 것은 주제 10(2012)년이었다.

사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일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맞이한 그때 물들이와 숨마운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한 우리 인민이었다. 더욱이 경제 전설과 국력 강화를 위해 한푼의 자금도 꺼중하던 때였다.

하지만 당을 따라 오직 환경 만을 걸는 우리 인민, 고단속에서도 미래를 막판하여 최후승리를 향해 꽂듯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활유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확고히 하시였다.

지금도 우리의 귀천에 물려나오는 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를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펼치시며 하시던 말씀이...

상세히 이런 분이 어디 계시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 창조물도 귀중하지만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 구현된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분,

승마구락부가 꾸려지면 승마운동바람도 일어날 것이다. ...

훌륭한 문화체육시설에서 기쁨의 웃음을 놀이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인민의 요구와 려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일꾼들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주제 10(2013)년 4월초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런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다 암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과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었던 원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일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다 암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뜻과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었던 원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일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온라인에 문수를 놀이장과 창조물을 대하시는 일에 있었습니다.

본래 송고한 풋을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기에 그에게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장을 드러내고, 그 뒷이면은 그나쁜 감동속에 절감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군들이

하신 것은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 건설이 당시 바라는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문이었다.

그래서 이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를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힘, 찬란한 미래가 비껴있다.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기상과 힘, 찬란한 미래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를 놀이장과 미림승미구락부를 건설하기 위한 구상을 펼치시며 하시던 말씀이...

승마구락부가 꾸려지면 승마운동바람도 일어날 것이다. ...

훌륭한 문화체육시설에서 기쁨의 웃음을 놀이터로 즐기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일마다...

승마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좋아할 것이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민의 요구와 려익이었다.

창성각과 창성국수집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은 바로 인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새기신 애국현신의 자욱

오랜 세월 대전로 열어불었던 삶
천리강토에 정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세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지금 빼내외
의 온 거에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
루벌리 거시고 부강번영하는 통일조
국을 일깨새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애족의 한정생을
드러운 적경속에 다시금 되새겨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염려해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행복을 위한 길에 헌생을 꽂그리 박차시며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루어하신 절세의 애국애족이십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한결같은 널원이며 절대로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격려의 이 파사는 속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정생 꿈없이 원하는 원신의 뜻과 기운을 이어주시면서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고교의 낫과 방을 이어오시였다.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들풀시느라 한밤을 묽고 지새우시고도 이 길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잇달아 있다면 이제라도 빠져, 친리를 더 가고 싶으셨다고 하시며 원신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 그의 암泞이 걱정되시였다. 우리가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일들을 묵고 지새우는 것을 간청하는 일꾼들에게 우리가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추면 조국통일이 빨라지길 당부하고자 하시면서 그 절차를 음성을 영원히 잊을수 없는 우리 인민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자주 회고하였다. 선조사찰의 나날에 할 때가 많았고 눈물에 차운 눈물이 가리워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는 그런 때도 많았다고, 그러나 수령님께서 막기고 가신 인민의 행복이 있고 기

어이 앙아을 통일조국이 눈앞에 있어 끝없이 그 길을 헤쳐넘었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절단의 의지로 헤치신 그 애국현신의 로정에 멀고 힘든 전선길을 봉합과 청기 밖으로 이어온 눈물겨운 사연도 어려워있고, 산이 술내리는 퇴련일대에서 청색벽을 넘면서 맞으시며 자

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제될 원래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면 잊지 못한 이야기도 새겨져있다.

안개낀 이론아침 판문점을 찾으시여 어버이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

시기에 조국통일문건에 기록된 청법이 새겨져있는 비밀에서 오래 동안 서제시며 조국통일의 앞길에 청법한 관판이 캐나놓으 있으나 수령님의 유종을 밟들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

성취할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그

남의 교시는 오늘도 겨레의 심장을 새롭게 두드려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렇듯 위대한 애국현신의 기운을 물을 빠져나온 조국통일과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고교의 낫과 방을 이어오시였다.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들풀시느라 한밤을 묽고 지새우시고도 이 길이 조국통일의 앞길에 잇달아 있다면 이제라도 빠져, 친리를 더 가고 싶으셨다고 하시며 원신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 그의 암泞이 걱정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정생 꿈없이 원하는 원신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여 주무시지 않고 대성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머님의 따스한 손길이 미치는 것만 같고 때로는 수령님께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두고 크게 심려하여 주무시지 않고 대성장을 바라본다. 수령님의 심려를 책임지고 들어드려야 할 사람이 그만한 퍼포를 못 이겨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하시는 어머님의 충실향한 말씀이 들리기는 것만 같아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여 일한다.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을 놓고 가슴아파 하실 때 나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밤을 꼬박 밟아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일꾼들이 제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루 풀을 무어야

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국통일과 잊당아이였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절차를

이어나가고자 하시면서 그 절차를